

2011년 건설업계 사회공헌 비용으로 1,234억원 지출

- 건설산업 사회공헌 실태조사 결과 분석, 78.2%를 기부 활동에 지출 -

이 흥 일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hilee@cerik.re.kr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에서는 건설산업 내에서 수행되어 온 사회공헌활동을 총정리하기 위해 2012년 7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5개월에 걸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의뢰해 '건설산업 사회공헌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산업의 사회공헌활동 성과와 그 특징에 대해 정리해보았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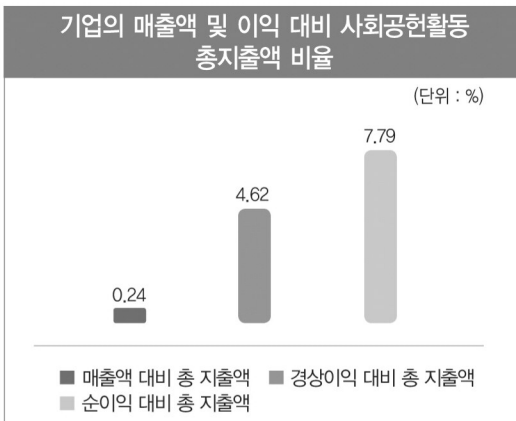
답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실태조사에 응답한 기업, 협회 및 공제조합이 2011년 한 해 동안 사회공헌활동에 지출한 금액은 총 1,233억 8,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 중에서 93.1%에 해당하는 1,148억 2,800만원은 기업이 지출한 금액이며, 3.2%에 해당하는 39억 4,100만원은 협회가, 3.7%에 해당하는 46억 1,300만원은 공제조합이 지출한 금액이었다.

2011년 사회공헌 지출 총액 1,233.8억원

'건설산업 사회공헌 실태조사'는 국내 건설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 및 단체의 사회공헌활동 현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산하 18개 협회·공제조합과 각 협회 소속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조사의 응답 대상은 2011년 한 해 동안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업과 협회, 공제조합들이었다. 본 조사에 응답한 기업은 총 98개사였으며, 10개 협회, 4개 공제조합도 응

경기 침체 불구 사회공헌액 비율 상승

실태조사에 응답한 기업들이 2011년 한 해 동안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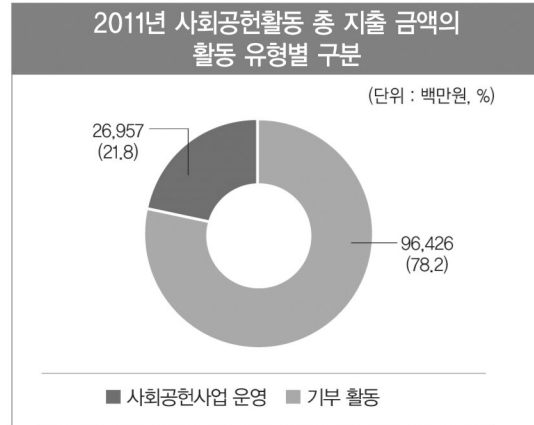
1) '건설산업 사회공헌 실태조사'의 분석 결과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에서 2012년 12월 말 발간한 「2012 건설산업 사회공헌백서」에 보다 상세히 수록되어 있음.

특집 건설산업의 사회공헌활동

회공헌활동에 지출한 금액은 평균적으로 매출액 대비 0.24%, 순이익 대비 7.7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2007년 기준의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활동 지출액 비율 0.15%, 순이익 대비 사회공헌활동 지출액 비율 4.57%보다 각각 0.09%p, 3.22%p 상승한 수준이었다. 즉,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주택경기 침체의 여파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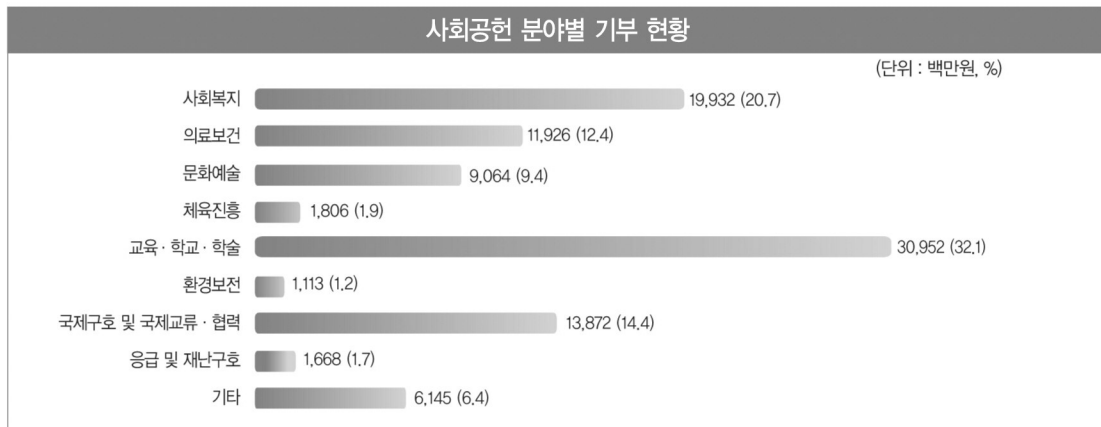
기부활동에 78.2% 지출

사회공헌활동 총 지출 금액은 기부활동에 지출된 금액과 사회공헌사업 운영에 지출된 금액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2011년 사회공헌활동 총 지출 금액 중 78.2%에 해당하는 964억 2,600만원은 기부활동에 지출되었고, 나머지 21.8%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회공헌사업 운영에 지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²⁾ 2011년 기부활동에 지출된 금액을 사회공헌 분야별로 나눠 살펴보면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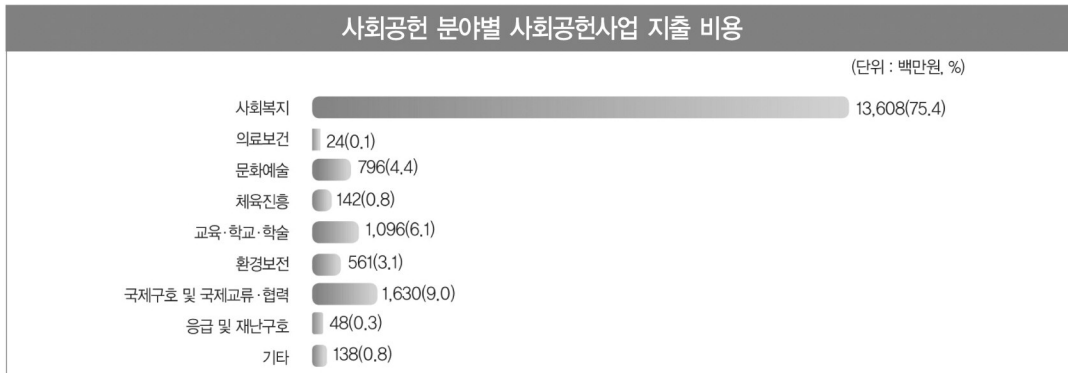
주: 실태 조사에 응답한 98개 기업, 10개 협회, 4개 공제조합 기준임.

육·학교·학술 분야에 32.1%를 지출해 가장 많은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사회복지 분야(20.7%), 국제구호 및 국제교류·협력 분야(14.4%) 순으로 기부 금액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협회 및 공제조합의 유형별로 나누어 2011년 한 해 동안 지출한 기부 금액을 사회공헌 분야별로 구분해보면 기업과 공제조합은 교육·학교·학술 분야에 가장 많은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고, 협회는 사



주: 해당 조사 항목에 응답한 82개 기업, 10개 협회, 4개 공제조합 기준임.

2) 기부활동은 현금, 현물 등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고, 사회공헌사업 운영은 '집단지 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공헌적 성격의 사업을 기업, 협회 및 공제조합이 직접 또는 외부 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함.



주 : 해당 조사 항목에 응답한 39개 기업, 5개 협회, 1개 공제조합 기준임.

회복지, 교육·학교·학술 분야에 거의 비슷한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공헌사업 운영도 활발히 전개

사회공헌활동에는 기부활동 외에 기업이나 단체가 직접 또는 외부 기관과 공동으로 사회공헌사업을 기획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단순하게 기부금을 복지단체와 같은 외부 단체에 전달하는 사회공헌활동이 많았으나, 최근 들어서는 기업들이 직접 사회공헌사업이나 이벤트를 기획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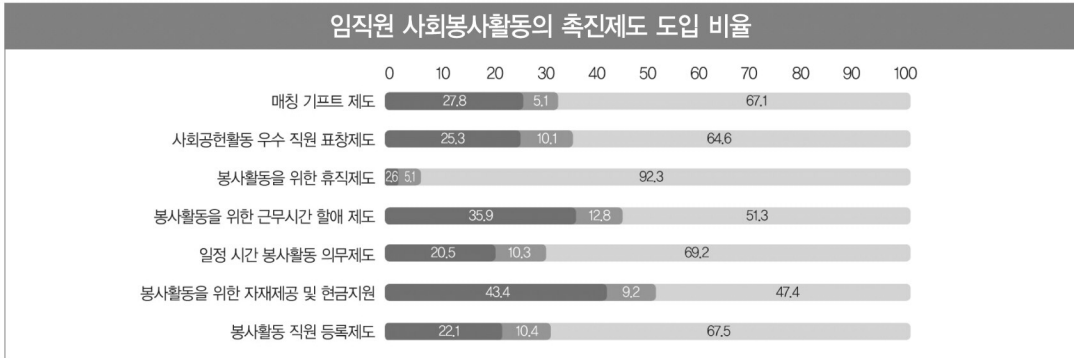
건설산업 사회공헌 실태조사에 응답한 기업, 협회 및 공제조합 중 2011년 한 해 동안 사회공헌사업을 운영하였다고 응답한 기관 수는 총 47개로 실태조사에 응답한 전체 응답 기관 수(112개) 대비 42%를 차지했다. 이를 통해 볼 때 건설산업 내에서도 사회공헌사업 운영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한 해 동안 사회공헌사업을 운영하였다고 응답한 47개 기관(기업, 협회 및 공제조합)이 2011년 한 해 동안 운영한 사회공헌사업에 지출한 총 비용은 269억 5,700만원인 것

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기업이 지출한 비용은 250억 8,000만원이며, 협회가 지출한 비용은 186억 900만원, 공제조합이 지출한 비용은 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운영 사회공헌, 사회복지에 주력

사회공헌사업 운영은 기업, 협회 및 공제조합이 직접 사업의 운영 주체가 되어 사업을 기획, 운영하는 직접 운영 사회공헌사업과 외부 기관이 주최하는 사업에 참여해 운영하는 공동 운영 사회공헌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1년 한 해 동안 사회공헌사업에 지출된 총비용 중 직접 운영 사회공헌사업에 지출된 비용은 135억 3,400만원으로 50.2%를 차지했다. 한편, 공동 운영 사회공헌사업에 지출된 비용은 134억 2,300만원으로 49.8%를 차지해 응답 기관들이 공동 운영보다는 직접 운영에 조금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경우는 50.8%인 127억 3,200만원을 직접 운영 사회공헌사업에 지출했고, 협회의 경우는 42.6%인 7억 9,600만원, 공제조합의 경우는 62.5%인 500만원을 직접 운영 사회공헌사업에 지출했다. 2011년 한 해 동안 기업, 협회 및 공제

특집 건설산업의 사회공헌활동



주 : 해당 조사 항목에 응답한 79개 기업 기준임.

조합이 사회공헌사업에 지출한 비용을 사회공헌 분야별로 구분해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국제구호 및 국제교류·협력 분야, 교육·학교·학술 분야 순으로 기부 금액 지출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협회 및 공제조합의 유형별로 나누어 2011년 한 해 동안 사회공헌사업에 지출한 비용을 사회공헌 분야별로 구분해보면 역시 모든 기관들이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공헌, 사내 제도 도입 실태

다음으로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내 제도 도입 및 정비 여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42.2%가 사회공헌활동 관련 예산의 별도 편성/운영 제도를 꼽아 가장 높은 도입률을 보였다. 이 외 37.8%가 경영 방침에 사회공헌활동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36.7%가 사회공헌활동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 기업의 24.4%가 사회공헌활동 예산 집행, 성과에 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하고 있으며, 사업 보고서상에 사회공헌활동 내용 수

록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 23.3%를 차지하였다.

임직원 사회공헌 촉진 제도 다양해

최근 기업들은 자사 임직원들이 기부활동이나 사회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매칭기프트제도 도입, 사회봉사단 창단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 운영해 임직원의 사회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자사 임직원의 기업에 대한 몰입도와 자긍심, 애사심 등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기업의 대외 이미지도 제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이런 임직원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들을 얼마나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43.4%가 봉사활동을 위한 자재 제공 및 현금 지원 제도를 도입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도입률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응답 기업의 35.9%가 봉사활동을 위한 근무시간 할애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매칭기프트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 27.8%를 차지하였다. 결국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임직원의 사회공헌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촉진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ERIK